

공공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 인식 이해

Understanding Librarians' Perceptions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DEI)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박 주 희 (Juhee Park)*

나 은 엽 (Eun Youp Rha)**

초 록

본 연구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니셔티브에 관련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 50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사서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DEI 관련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 중 5%에 불과하였으며, 대상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 단기성·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속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사서들은 DEI 가치 실현을 도서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예산, 인력,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포괄적 홍보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DEI 이니셔티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기초 작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librarians' perceptions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itiative-related programs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the websites of selected public libraries were analyzed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public libraria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only 5% of all library programs qualified as DEI programs, and most were targeted at a limited range of user groups. Furthermore, these programs were predominantly short-term or one-time events, highlighting limitations in sustainability and diversity. Although librarians recognized DEI as a core value aligned with the mission of public libraries, they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implementing such programs due to limited funding, staffing shortages, and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The study identifies the need for strengthened policy support,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comprehensive outreach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EI programs. As an exploratory study of DEI awareness in Korean public libraries—still in its early stages—this research provides a foundational basis for future studies and practical advancements in DEI-related library services.

키워드: 공공도서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 소외 계층

Public Libraries,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Programs, Marginalized group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jh_9419@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rha@k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6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2): 129-153,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2.129>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인종, 성별, 장애,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핵심 가치로 삼는 DEI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DEI는 모든 개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조건 속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보 접근성과 평생학습 보장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정보 격차 해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 고령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의 경험과 정체성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도서관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이용자를 포용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도서관 협회 및 기관에서는 문화의 평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이지수, 2022).

해외의 경우, 북미 및 유럽의 도서관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일찍이 마련해왔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과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수자를 위한 별도 서비스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Krass et al., 2022).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DEI 가치를 도서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포용적인 정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ALA, 2017).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따뜻한 동행'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별·목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포용적 서비스 개발과 실천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강지혜, 배경재, 2020). 지금까지 특정 도서관이나 이용자 유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분석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공공도서관 전반에서 DEI 관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DEI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실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약을 조망함으로써 도서관의 포용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은 어떠한가?
- (2)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이해 수준은 어떠한가?
- (3) 공공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DEI 이니셔티브 구현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이 다양한 이용자를 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2.1.1 개념 정의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모든 개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와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LA, 2017).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성은 사람들 간의 가시적·비가시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경험, 관점의 차이까지 포함한다. 형평성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출발점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전제로 각자의 여건과 필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평등(Equality)과 구별되며,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적 접근을 강조한다. 포용성은 이러한 다양성과 형평성의 기반 위에 모든 개인이 존중받고, 자원과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환영받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적·문화적 조건을 포함한다(ALA, 2017; Washington, 2022).

다양성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의와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초기에는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대응하고,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문화 등으로 주변화된 집단을 조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었다(Duffus et al., 2020). 그러나 다양성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형평성과 포용성이 함께 논의되면서 DEI로 확장되었다(Duffus et al., 2020). 최근에는 DEI 외에도 평등(equality), 소

속감(belonging), 존엄성(dignity), 정의(justice), 접근성(accessi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 등과 같은 개념이 함께 사용되며,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한 문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일 개념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거나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Wolbring & Nguyen, 2023).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중요성은 오늘날 교육, 의료, 경영, 과학 및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임후남, 2019; Cumming et al., 2023), 의료 분야에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치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Mosley et al., 2025; Stanford, 2020). 경영 분야에서는 조직 내 다양성 관리와 포용적 조직문화가 문제 해결력, 창의성, 시장 대응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Alshemmari & Monawer 2024; Randel, 2025), 마케팅 분야 역시 다양한 정체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전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Hoch, 2023; Ismail, 2024).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는 여성과 소수 인종의 참여 확대를 위한 DEI 이니셔티브가 확산되면서 기술 혁신과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Yadav & Lenka 2020; Fisher et al., 202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DEI는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

여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인식되며,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도서관과 도서관 종사자들이 모든 업무에서 DE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ALA, 2017).

2.1.2 도서관의 DEI

도서관에서 DEI는 장서 구성, 서비스 제공, 인적 자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다. 먼저, 장서 구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정체성을 반영한 자료 확보가 강조된다. Proctor (2020)는 포용적 장서가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Wells et al.(2023)는 특정 집단 중심의 편향을 지적하며 '다양성 감사(Diversity Audit)'를 통한 균형 있는 장서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접근이 강조된다. Cooke(2017)는 도서관이 충분히 정의되지 않은 집단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웃리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Jaeger et al.(2015) 역시 포용적 서비스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서관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조직 내 다양성 확보와 직원의 문화적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Foy (2021)는 도서관이 외적으로는 포용성을 상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포용을 위해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yed(2014)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서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였고, Anaya와 Maxey-Harris (2017)는 무의식적 편견과 포용적 언어 사용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직원의 포용적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DEI는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운영 정책,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실현되며, 이러한 실천은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조직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정보 접근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에 주목하는 포용적 설계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EI는 도서관의 핵심 운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2 공공도서관

2.2.1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공공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는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고용, 문화 참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지식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능해진다(Kosmicki, 2019).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접근의 불균형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격차를 초래하며, 정보 접근권 보장은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Pateman & Vincent, 2016). 정보격차는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 신뢰성 인식 등의 차이까지 포함한다(이승민, 2020). 이에 조용완(2007), 이은철과 심효정(2008) 등은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어촌 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서 도서관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수적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과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문화유산과 예술 표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IFLA & UNESCO, 2022), 실제로 공공도서관은 일상 속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왔다(곽철완 외, 2009; 윤희윤, 2015; 이승민, 2022).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자원과 활동을 통해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김홍렬, 2004).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공동체 허브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Audunson(2005)은 공공도서관을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낮은 강도의 만남의 장소”로 정의하였고, Vårheim(2017), Scott(2011) 등은 도서관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도서관 내 독서 모임, 문화 행사, 시민 포럼 등의 활동은 신뢰와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통로가 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정보 접근권 보장,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 조성이라는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2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문화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문화체육관광부(2007)는 이를 자료 중심 봉사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은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비도서적·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김관준(2022)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정보 제공, 독서 활동, 문화 행사, 평생 교육 등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보았으며, 이수상 외(2024)는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연결 매개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도서관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문화적·교육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장덕현(2014)은 일상생활 기반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서비스로 기능함을 강조하였고, 윤유라(2023)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과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이수상 외(2024)는 영화 상영회와 같은 활동이 정보 습득과 문화 참여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며, 오선경(2015)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에서도 포용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 평생학습,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의 목적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Kosmicki(2019)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문화적 소통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며, 이수상 외(2024)는 이를 도서관 포용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

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전체의 5.5%에 불과하며, 성인 일반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도서관의 포용적 역할 수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수상 외, 2024).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민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LGBTQ+ 커뮤니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포용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도우며(Delgado, 2023),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해력 향상, 환경 개선, 인식 교육 등을 포함한다(Alwell & Coburn, 2014).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해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장덕현, 이연옥, 2017; 전남희, 2021), 성소수자 대상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과 전시회 등을 통해 포용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Vincent, 2015).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문화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포용적 공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에서도 소외계층의 참여와 접근권 보장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DEI의 실현은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2.1.2 참고).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도서관 서비스의 유형으로 보고 서비스 측면에서 DEI 관련 프로그램을 정의하였는데(Cooke, 2017; Jaeger et al., 2015),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한 이용자 집단에게 보나나온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대상을 기준으로 DEI 프로그램을 정의 및 분류하였으며, 대상자 유형은 Cooke(2017)의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to Diverse Populations)』를 기반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고).

3.1 개인 심층 인터뷰

공공도서관의 DEI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와 같이, 인터뷰 질문지는 배경정보, DEI에 대한 인식, DEI 프로그램의 적용 및 확장 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터뷰 상황에 따라 일부

질문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9명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모집하였다. DEI는 공공도서관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주요 가치이므로, DEI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프로그램 운영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다만 초기 표집자는 DEI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서 4명이었고 이들의 추천을 통해 표집을 확장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사서가 프로그램 운영 유경험자로 드러났다. 인터뷰는 2025년 4월~5월 약 2달간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Zoom) 방식으로 약 60분 동안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정보는 〈표 3〉과 같다.

인터뷰 분석은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한 후, Strauss와 Corbin(1998)의 개방 코딩 절차에 따라 주제별로 코딩 및 범주화하였다. 개방 코딩은 반복적 비교와 분석을 통해 자료로부터 개념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으로(유기웅 외, 2018), 전사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표 1〉 다양한 이용자 집단 구분(Cooke, 2017)

대상	정의 및 특성
인종, 민족, 출신 국가가 다른 집단	주류 사회의 문화·언어·제도와 상이한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정보 이용 과정에서 문화적 소외 및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노인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정보 활용에 제약을 겪고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고령의 집단
장애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이용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집단
국제 유학생 및 신규 이민자	새로운 사회 구조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의 외국 출신 집단으로, 적응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
빈곤층 및 노숙인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으며, 주소 및 신분증 부재 등으로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
LGBTQ+ 커뮤니티	다양한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성을 가진 집단으로, 젠더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
수감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일반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된 집단

〈표 2〉 인터뷰 질문 영역 및 내용

질문 영역	질문 내용
배경정보	근무처 및 담당업무 소개
	도서관 근무 경력 및 현재 업무 경력
DEI에 대한 인식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의 DEI 가치에 대한 인식
	도서관의 DEI 실현 노력 및 사례
DEI 프로그램 적용 및 확장	프로그램 운영 경험
	근무 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유무
	DEI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인식
	DEI 프로그램 확대·개설 시 예상되는 어려움
	DEI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지원 및 자원

〈표 3〉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근무 경력	프로그램 운영 경험	소속 도서관 지역	소속 도서관 운영 방식
참여자 1	4년 4개월	○	대구	위탁
참여자 2	10년	○	대구	위탁
참여자 3	28년	○	안산	직영
참여자 4	5년	○	대전	직영
참여자 5	2년 6개월	○	대전	직영
참여자 6	6년	○	대전	직영
참여자 7	4년	○	서울	직영
참여자 8	3년 8개월	×	대전	직영
참여자 9	6년	○	서울	위탁

코드 생성 시에는 해석의 흐름을 유지하고 개념 간 연결을 돕기 위해 메모를 함께 작성하였으며, 도출된 코드는 내용의 유사성, 상황 맥락, 표현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하위 범주를 통합하여 상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3.2 공공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실태 조사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위한 보완적 분석 도구로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선택하였다.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련 웹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DEI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해 2024년 공공도서관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반) 기준, 전국 1,270개의 공공도서관 중 프로그램 실시 횟수가 많은 상위 50개관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대상 기간은 분석 수행 시점인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50개관에서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인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표 1〉의 다양한 집단 유형을 토대로, 프로그램 소개에 모집 대상이 이러한 집단 유형에 속하거나 그 외 '문해',

〈표 4〉 DEI 프로그램 실태 조사 대상

도서관 홈페이지 조사 대상(50개관)		
1. 마포중앙도서관	18.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35.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2.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19.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36. 강동구립해곡도서관
3. 오산시 중앙도서관	20.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37. 홍천교육도서관
4. 천안시도서관본부 청수도서관	21. 성동구립도서관	38. 강서영어도서관
5.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22.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39.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6. 제주도서관	23. 서산어린이도서관	40.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7. 서산시립도서관	2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41. 수성구립고산도서관
8. 강서구립 푸른들청소년도서관	25. 서초청소년도서관	42.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9.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26.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43.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10.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27.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44.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1. 자양한강도서관	28.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4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12.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29. 고향의봄도서관	46.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13.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30. 오창호수도서관	47.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14.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31. 파주시중앙도서관	48.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15.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32. 대전학생교육문화원	49.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16. 은평구립도서관	33.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5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7.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34. 연제도서관	

‘정보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의 용어가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계획서와 보도자료 등의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공공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 현황

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위해 웹사이트 분석과 사서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

행하였다. 50개 도서관의 2,980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DEI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것은 총 149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57개), 노인(50개), 장애인(28개), 소외계층(14개)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먼저,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은 사회적 통합과 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로 기초 언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문화 체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50개관 중 10개관에 불과하였고, 정기강좌¹⁾를 진행하는 기관은 단 4개관 뿐이었다. 또한 8개관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반수가 일회성 프로그램²⁾으로 진행되고 있

1) 동일 주제로 4회 이상 진행하는 강좌(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04.10.)
 2) 동일 주제로 4회 미만 진행하는 강좌 또는 전시회, 세미나, 대회, 문화 행사 등의 프로그램(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04.10.)

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취미 활동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 및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정기강좌의 비율은 높았으나, 노인 복지 기관의 활동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이명희, 김미초, 2010) 도서관만의 특성

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체 건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는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 및 수화 교육도 일부 제공되었으나, 프로그램의 다수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제한적이었다. <표 5>는 웹사이트 분석 결과 나타난 DEI 프로그램의 주요 유형 및 사례를 나타낸다.

<표 5> DEI 프로그램 현황

대상	프로그램 수	주요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사례(운영 도서관)
다문화	57	문화 체험(50)	다양한 식문화로 친해지는 우리(마포중앙도서관) 달라도 괜찮아(은평구립도서관) 책으로 이야기하는 상호문화(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기초 언어 교육(7)	다문화 한국어 교실(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다문화 가정 방문 1:1 독서지도(마산도서관)
노인	50	취미 활동(20)	시니어 모델 워킹 특강(고덕평생학습관) 독서동아리 - 책과 사람(고덕평생학습관) 우리민요(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디지털 기기 교육(16)	시니어 컴퓨터 교실(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은빛 스마트폰 활용 기초(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건강 증진(14)	지속적 활력을 주는 힘내체조(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시니어요가(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장애인	28	문화·교육(13)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성인지 감수성 교실(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더불어 행복한 책놀이(마산도서관)
		건강 증진(13)	특수체육(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놀이체육(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더 건강한 운동(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점자·수화 교육(2)	점자, 손끝으로 읽는 마음의 소리(마산도서관)
소외계층 (기타)	14	문해력 향상(11)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다문화 가족 포함)대상: 문해력 교육(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찾아가는 여름 독서 교실(오산시 중앙도서관)
		사회 고립 예방(3)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그림책과 미술로 알아보는 나(마산도서관) 학교밖청소년 대상: 아주 특별한 그림책 레시피(마산도서관)

나아가 사서 인터뷰를 통해 DEI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정보 접근성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택배 대출 서비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참여(투표)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일반 영화에 음성 해설과 자막을 넣어서 시청각장애인은 물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영화예요.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작품 중에 이용자분들의 투표로 최종 선정된 작품을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상영했습니다.” - 참여자 7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적 고립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시니어 독서 동아리, 인문 강좌 운영 등을 통해 고령 이용자의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사서들은 사회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 의료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요. 노인 돌봄 지도자들이 가서서 책도 읽어주고 독후 활동도 하고

책과 연관된 활동을 하거든요.” - 참여자 3

“사회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책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하고, 그분들이 거동이 어려운 또래 시니어 분들을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드리는 활동을 하거든요.” - 참여자 4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정보 접근성 지원과 한국 문화 이해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독서 및 독후 활동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다.

“저희는 도농 복합지역서 시골 면 단위 학교들에 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많거든요. 유치원이라고는 지 학교에 거의 90%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문화 자녀들이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 참여자 3

공공도서관의 DEI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수와 내용이 특정 대상 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웹사이트 분석 결과 149개의 프로그램 중 49개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운영되어,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포용적인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대상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서와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도서관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DEI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2 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서의 인식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DEI 이니셔티브의 총체적 개념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DEI라는 용어에 생소함을 표했으며, 국내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해당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비슷한 용어들은 늘 있었잖아요. 그런데 DEI 이렇게는 처음 들어요.” - 참여자 2

반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각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은 주로 도서관 이용자가 연령, 성별, 인종, 문화,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도서관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높은 공감을 보였다. 참여자 3은 “요즘 어르신이나 다문화 이용자처럼 서비스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도서관 서비스가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자 4는 “다양성은 이용자 개인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형평성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 “이용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상태” 등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다양성과 포용성에 비해 형평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참여자 2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포용성은 단순히 다양한 집단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 공간에서 차별 없이 환영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4는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참여자 5는 “포용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모두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참여자 7은 “포용성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사서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을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생소함을 느꼈으나,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도서관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 세 가치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양성은 이용자 각자의 문화적·경제적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포용성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결국 모두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요.” - 참여자 5

또한, DEI가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추구해야 할 방향”, “공공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은 비독자를 독자로 끌어들이는 핵심 가치” 등의 표현을 통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EI라는 걸 처음 저도 듣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도서관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DEI의 가치가 없다면 도서관이 아니다’가 정도가 될 정도로,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참여자 2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죠. 공공도서관은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사회에서 비독자는 대부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참여자 3

요약하면, 사서들의 통합적인 DEI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으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각각의 가치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과 이해를 보였으며, 이를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3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대한 사서 인식

4.3.1 DEI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서들은 DEI 프로그램을 추가적인 시도가 아닌, 도서관 본연의 방향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DEI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초기 기획 단계부터 포용성과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해진 예산이랑 인력 안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려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만을 위해 처음부터 주 이용층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참여자 9

또한 사서들은 DEI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이 정보기관이자 문화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 격차 해소는 사서가 정보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DEI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수단임을 시사한다.

“DEI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 집단이 공평하게 서비스 받으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7

일부 사서는 DEI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확대, 사업 유지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향후 DEI 프로그램 기획이 도서관 운영의 장기적 과제로 정착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참여자분들 모두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았고 결과가 좋아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여자 7

“저희가 첫 해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액 도비로 했는데 이 사업들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강사들을 쓰고 있어요. 이제 강사분들도 4년 차, 5년 차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고 오래 하시더라고요.” - 참여자 3

4.3.2 DEI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요건
사서들이 강조하는 DEI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요건으로는 예산, 인력, 협력, 프로

그램 홍보 및 접근성 확보, 관련 교육 제공 등이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화 및 자원 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1) DEI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편성

우선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산, 강사 섭외 및 홍보를 위한 예산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양질의 강사 섭외와 봉사자 활동비, 지속적인 홍보 및 피드백 관리 등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범위가 좁고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DEI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들조차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DEI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단 개설 자체가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에요. 대상자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개설이 된다고 해도 효과성 측면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죠. 지금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 참여자 4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기존 참여자분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걸 나눠서 해야하는거니까 프로그램이 줄어들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율이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참여자 6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양질의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주제 선정 및 강사 섭외 단계부터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기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구청 등 상부 기관이 주도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도서관 자체의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 분야의 강사 섭외라고 생각하는데요, 섭외료가 제한적이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맡은 프로그램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반액이나 줄어들었어요.” - 참여자 7

“인적·재정적 지원은 완전 없죠. 진짜 어렵죠. 예전에 유명한 박사님을 어렵게 20~3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모셔온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만족도 자체가 달라요. 이분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더 많으니까.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차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구청에서 지정한 지역학 강연에는 수십만 원씩 지급하는 걸 보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참여자 2

2) DEI 프로그램 사서 인력

사서들은 DEI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서들은 자료 조직, 정보 서비스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전산 관리, 행정 업무,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게 제일 어렵죠. 직원은 많지 않은데 다양한 일을 해야하니까. 취약계층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인력이 더 있어야지 할 수 있고 …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인력, 인력은 어느 도서관이든지 다 부족하다고 할 것 같은데.” - 참여자 3

“제가 지금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 업무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사서직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서가 정보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5

인력 부족으로 사서와 이용자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이용자 요구 파악 및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요구를 능동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소외계층의 특성상, 사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들의 정보 요구를 섬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에서는 이러한 실천이 어려우며, 이에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한 구조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인력 부족 때문에 사무실이랑 이용 공간이 좀 분리된 느낌이 강한데, 인력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용자들이와 자연스럽게 계속 마주치는 환경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 참여자 8

3) 상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공공도서관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상부 기관의 정책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지자체나 운영 주체의 정책 방향성 및 관심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일부 사서들은 상부 기관과의 정책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추진이 원활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EI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제약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상위 기관, 구청장님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우선 순위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부에서 논의해도 추진이 어렵죠.” - 참여자 1

“재정적 지원은 비교적 잘 받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건 프로그램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지자체 기초와 잘 맞았고 특히 지자체장이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재정적 지원을 잘 받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만 봐도 예산이 많이 잘렸거든요.” - 참여자 4

또한, DEI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사서 간 협업 구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되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도서관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되었다. 사서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 기반 유관기관의 협력 없이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수요 파악, 실질적인 운영 성과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다.

“첫 해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일수록 정보에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병설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고 소개 받고 발로 뛰어 다녔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 미래교육과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가정들을 잘 아는 담당자들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모집하기도 훨씬 좋죠.” - 참여자 3

한편,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서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기획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적인 운영 효율의 향상을 넘어서, DEI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기획할 때 여러 직원이나 기관이랑 공청회처럼 방향을 같이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창하게 말고 그냥 간단한 회의처럼요.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하면 좋겠거

든요. 'Programming Librarian' 같이요. '사서 e마일'도 있긴 한데, 공식적인 논의 구조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죠." - 참여자 2

4) DEI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

도서관 프로그램의 접수 및 홍보가 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접근성이 낮거나 도서관 이용 경험은 적은 정보 소외계층은 프로그램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적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 프로그램이 주로 홈페이지 접수 위주라, 관심이 없거나 정보에 소외된 분들은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서 실제 참여율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참여자 6

"인근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 공문 발송도 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아직은 관심을 끌기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 참여자 7

무엇보다 사서들은 DEI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용자의 도서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도입과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접근성 강화 전략이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도서관 이용 경험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경우 정서적·문화적 거리감 또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유연한 참여 구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DEI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현실적 조건과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취약계층일수록 도서관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나 결혼 이민자나 이런 환경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둘 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데려다주지도 못하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오기는 어렵고, 이게 아웃리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요. 이런 취약계층일수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참여자 3

5) 사서 대상 DEI 교육

DEI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DEI 교육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관련 아동도서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일부 사서가 개인적·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

"어린이 책으로 동성애 관련 책이 있어요. 저는 (도서관이) 누구든 보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니까 수서를 한건데, 다른 사서분이 "왜 이런 책을 샀냐, 내 자식은 안 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참여자 1

또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조직 내 협조 부

족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례는, 정보 제공 자로서의 중립성과 직업적 전문성, 그리고 조직 차원의 수용성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사서의 의지만으로는 DEI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며, 조직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DEI 이야기를 듣고, 사서의 본질이 바로 그런 포용성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장애 학생 3명이 도서관에 왔었는데, 활동이 좀 거치니까 내부 반발이 심해서 결국 프로그램이 중단됐었어요. ... DEI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 사서에게 인식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정보는 계속 바뀌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사서의 역할은 그대로잖아요. 이제는 그런 정보 서비스 마인드가 DEI 교육을 통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참여자 2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많은 상위 50개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DEI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황 분석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프로그램 중 DEI 프로그램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였으며, 대상은 다문

화가정,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은 정보 접근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나, 대부분이 단발성으로 운영되어 지속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사서들은 DEI라는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성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각각에 대해서는 높은 이해와 공감을 보였으며, DEI 가치를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이자 사서 직무 윤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는 예산, 인력, 협조 부족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서들은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접근성 개선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DEI 프로그램은 대상의 규모가 작고 단기 성과 도출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DEI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 예산 항목 설정과 함께, 효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사서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 개편과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DEI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도서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과 실무 중심의 협력 프로토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 대상자의 물리적·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 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기관 간 홍보

연계 등 전략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DEI 운영을 위한 사서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실무 기반 훈련에서 DEI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EI 프로그램이 개별 도서관의 자발적 시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상위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는 모든 행정 부서에 반인종차별 및 포용 정책(ARDI)을 의무화하였으며, 도서관도 이에 따라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DEI 추진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 협력과 조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도 DEI 요소를 운영 지침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적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

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로, DEI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확인하고, 운영상의 제약과 개선 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인터뷰 참여자가 소수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실태 조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횟수 기반 상위 도서관 50개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편중과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도서관을 포함하여 실태 조사 및 사서의 인식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DEI 프로그램을 다양한 이용자 집단 대상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내용, 접근성, 운영자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DEI 해석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다층적, 포괄적 관점에서 DEI 프로그램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혜, 배경재 (2020). 지역기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수요 분석을 통한 도서관 포용성 강화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295-318. <https://doi.org/10.16981/kliiss.51.2.202006.295>
- 곽철완, 안인자, 김호연, 박미영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출처: <http://www.clip.go.kr>
- 김관준 (2022).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51-71.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051>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339-360.

- 문화체육관광부 (2007).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 오선경 (2015).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아웃리치 서비스 제공현황 조사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89-316. <http://doi.org/10.16981/kliss.46.2.201506.289>
- 유기웅, 김영석, 김한별, 정종원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제2판). 서울: 박영story.
- 윤유라 (2023). 부산지역 거점도서관의 고령자대상 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4(1), 3303-3312.
- 윤희운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http://doi.org/10.16981/kliss.46.4.201512.1>
- 이명희, 김미초 (2010).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비교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91-107.
- 이수상, 김수빈, 김나은 (2024).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정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9-53. <http://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이승민 (2020). 정보격차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적 정보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91-114.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91>
- 이승민 (2022). 문화자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81-101. <http://doi.org/10.16981/kliss.53.1.202203.81>
- 이은철, 심효정 (2008).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309-325.
- 이지수 (2022). 평등, 다양성, 포용의 연구 및 교육적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가이드에 관한 연구: 미국의 EDI 연구 가이드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9, 193-228. <http://doi.org/10.15400/mccs.2022.04.39.7>
- 임후남 (2019). SDG4 - 교육2030 포용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덕현 (201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73-192. <http://doi.org/10.4275/KSLIS.2014.48.4.173>
- 장덕현, 이연옥 (2017).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사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47-263. <http://doi.org/10.4275/KSLIS.2017.51.3.247>
- 전남희 (2021). 공공도서관과 사회정의-다문화아동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9(2), 1-32.
-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Alshemmari, J. M. & Al Monawer, F. H. (2024).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 diversity and innovation and its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System and Management Sciences*, 14(1), 471-489.
- Alwell, M. & Coburn, B. (2014). Programming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public library. *School Library Research*, 17, 1-18.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7).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DEI>
- Anaya, T. & Maxey-Harris, C. (2017). SPEC kit 356 Diversity and Inclusio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Audunson, R. (2005).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the necessity of low-intensive meeting-pla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https://doi.org/10.1108/00220410510598562>
- Cooke, N. A. (2017). Information Services to Diverse Populations: Developing Culturally Competent Library Professionals.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 Cumming, T., Miller, M. D., & Leshchinskaya, I. (2023). DEI institutionalization: measuring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55(1), 31-38.
- Delgado, L. H. (2023). Creating welcoming spaces: how immigrant-led cultural programs shape public libraries and the communities they serve. *Journal of Urban Affairs*, 46(10), 2023-2039. <https://doi.org/10.1080/07352166.2022.2150199>
- Duffus, O. A., Henry, T. N., & Krim, S. R. (2020). Diversity from the inside out: Cultivating an inclusive library environment. In C. Bombaro e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Action: Planning, Leadership, and Programming*. Chicago, IL: ALA Editions, 29-42.
- Fisher, O. J., Fearnshaw, D., Watson, N. J., Green, P., Charnley, F., McFarlane, D., & Sharples, S. (2024). Promoting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in research and funding: reflections from a digital manufacturing research network. *Research Integrity and Peer Review*, 9(1), 5.
- Foy, C. M. (2021). Successful applications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rogramming in various professional settings: strategies to increase DEI in librar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61(6), 676-685.
- Hoch, K. (2023).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Competitive Considerations for Marketing - A Content Analysis of Three Leading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ted States.

State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 Ismail, A. (2024). Creating a positive social impact: Examining 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ies in Finnish corporate marketing.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ulu, Finland.
- Jaeger, P. T., Taylor, N. G., & Gorham, U. (2015). Libraries,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Enabling Access and Promoting Inclus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Kosmicki, L. R. (2019). Equal access as social equity: a literature review of programming an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Progressive Librarian*, 47, 51-80.
- Krass, U., Allen, M., White, E., Cybelle Ferrari, A., Brigant, A., Prucková, L., Tarandova, S., Omella, E., & McGuire, C. (2022).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 Mosley, T. J., Zajdel, R. A., Alderete, E., Clayton, J. A., Heidari, S., Pérez-Stable, E. J., Salt, K., & Bernard, M. A. (2025). Intersectionality an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the healthcare and scientific workforces. *The Lancet Regional Health-Americas*, 41.
- Pateman, J. & Vincent, J. (2016). *Public Libraries and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 Proctor, J. (2020). Representation in the collection: assessing coverage of LGBTQ content in an academic library collection. *Collection Management*, 45(3), 223-234.
- Randel, A. E. (2025). Inclusion in the workpla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50(1), 119-162.
- Scott, R. (2011).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ommunity building. *Public Library Quarterly*, 30(3), 191-227.
- Stanford, F. C. (2020).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nd inclusion in the healthcare workforce.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112(3), 247-24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yed, M. (2014). *Developing the Culturally Competent Public Librarian: An Investigation of Diversity Training for Public Libraries to Support Empathic Service Provision to Black and Minority Ethnic (BME) Communit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 Vårheim, A. (2017). Public libraries, community resilience, and social capital. *Information Research*, 22(1), CoLIS paper 1642.
- Vincent, J. (2015). Why do we need to bother?: public library services for LGBTQI people. *Library Trends*, 64(2), 285-298.

- Washington, E. F. (2022). *The Necessary Journey: Making Real Progress on Equity and Inclusion*. Bost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Wells, V., Gibney, M., Paris, M., & Pfitzer, C. (2023). Student participation in a DEI audit as high-impact practic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9(1), 102615.
- Wolbring, G. & Nguyen, A. (2023). Equity/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d other EDI phrases and EDI policy frameworks: a scoping review. *Trends in Higher Education*, 2(1), 168-237.
- Yadav, S. & Lenka, U. (2020). Diversity management: a systematic review.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39(8), 901-92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 Lee, Yeon-Ok (2017).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247-263. <http://doi.org/10.4275/KSLIS.2017.51.3.247>
- Chang, Durk-Hyun (2014). A research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73-192. <http://doi.org/10.4275/KSLIS.2014.48.4.173>
-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
- Jeon, Nam-Hee (2021). Public library and social justice: reading guidance for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 1-32.
- Kang, Ji-Hei & Bae, Kung-Jae (2020). Strategies for increasing library inclusion by analyzing local-based demands of vulnerable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295-318.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295>
- Kim, Hong-Ryul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r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339-360.
- Kim, Pan-Jun (2022).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ield of public library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51-71.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051>

- Kwak, Chul Wan, Ahn, Inja, Kim, Hoyeon, & Park, Mi-Young (2009). A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97-208.
- Lee, Eun-Chul & Sim, Hyojung (2008). Basic study for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contribution for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309-325.
- Lee, Jisu (2022). A study on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EDI) research guides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U.S. *Culture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9, 193-228.
<http://doi.org/10.15400/mccs.2022.04.39.7>
- Lee, Myeong-Hee & Kim, Mi-Cho (2010). A study on the services of senior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compared with the senior programs in senior welf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91-107.
- Lee, Seungmin (2020). Paradigm shift of digital divide and intellectual digital div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91-114.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91>
- Lee, Seungmin (2022).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closing disparities of cultural capita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81-101.
<http://doi.org/10.16981/kliss.53.1.202203.81>
- Lee, Soosang, Kim, Subin, & Kim, Naeun (2024). A study on content analysis of domestic public library programs: focusing on Jeongdok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29-53. <http://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Lim, Hoo-Nam (2019). *SDG4 - Education 2030: A Study on Inclusion and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A Study on the Supporting of Culture Programs in Libraries*.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National Survey on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4th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Available: <http://www.clip.go.kr>
- Oh, Seon-Kyung (2015). An analysis of current outreach service for the disabled in Korean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289-316.
<http://doi.org/10.16981/kliss.46.2.201506.289>
- Yoo, Kiyung, Jeong, Jongwon, Kim, Youngseok, & Kim, Hanbyeol (2009).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young Story.

Yoon, Hee-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to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20.

<http://doi.org/10.16981/kliss.46.4.201512.1>

Youn, Youra (2023).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senior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4(1), 3303-3312.

